

신한지주 — 덜 쌓고 더 돌려준다

이익은 10년 최고, NPL 커버리지는 16.3%p 낮아졌다

- 1H26 영업이익 4조 6,307억원(+17.0% YoY). FY2025 연간의 65.9%.
-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79%에서 0.74%로 낮아졌으나 NPL 커버리지는 142.87%에서 126.55%로 하락.
- 10년간 환원 공시 9건이 전부 최근 3년에 몰려 있다. 희석 공시 0건.

이익은 10년 최고 구간에 있다

7월 23일 공시된 2Q26 연결 잠정실적은 영업이익 2조 4,763억원(QoQ +14.9%, YoY +22.9%), 지배주주 순이익 1조 8,201억원(+17.5%)이다. 상반기 누계 영업이익은 4조 6,307억원으로 전년 동기 3조 9,585억원 대비 **17.0% 늘었고**, FY2025 연간 7조 234억원의 65.9%에 해당한다.

FY2025 영업이익 7조 234억원은 10년 최고치다. FY2016 3조 1,086억원에서 2.26배가 됐다(표 1). 같은 날 신한은행 등 자회사 실적도 별도 공시됐으므로, 그룹 수치는 지주 본체 연결 공시로만 읽는다.

부채비율 1,201.94%는 위험신호로 켜져 있으나 이 업종에서는 성격이 다르다. 은행 예수금과 보험 책임준비금이 회계상 부채로 잡히기 때문이며, 손실흡수 여력은 부채비율이 아니라 자본비율로 본다. 그룹 총자본비율은 15.79%에서 **15.94%**로 올랐다.

부실은 줄었는데 방어막은 얇아졌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79%에서 **0.74%**로 낮아졌다. 부실채권 자체는 줄었다는 뜻이다.

그런데 NPL 커버리지는 142.87%에서 **126.55%**로 **16.32%p** 낮아졌다. 부실채권 1원당 쌓아둔 충당금이 1.43원에서 1.27원으로 줄었다는 의미다. **부실이 줄어드는 국면에서는 충당금을 덜 쌓아도 비율이 유지되는 것이 보통인데, 여기서는 분자(충당금)가 분모(부실)보다 빠르게 줄었다.** 두 지표를 함께 보지 않으면 "건전성이 좋아졌다"로만 읽힌다(표 2).

수익 구조에서는 은행 의존이 낮아졌다. 은행+카드 NIM은 1.93%에서 1.90%로 0.03%p 내려간 반면 **비은행 이익 비중은 24.14%에서 29.39%로 5.25%p** 올랐다. 마진이 늘리는 구간을 비은행이 메운 형태다.

환원 9건이 모두 최근 3년에 있다

10년치 공시에서 배당 5건·주식소각 3건·자기주식취득 1건으로 환원 공시는 9건인데, **그 9건이 전부 최근 3년에 들어 있다.** 앞선 7년은 0건이다. 7월 23일 하루에만 배당·소각·취득 결정이 함께 공시됐다. 유상증자·전환사채 등 희석 공시는 10년간 0건이다(표 3).

같은 기간 밸류에이션도 움직였다. 연말 PBR은 2020~2023년 0.3배에서 FY2025 0.6배로 올랐고 현재 0.91배다. 배당수익률은 FY2022 5.9%에서 FY2025 3.4%로 내려왔는데, 배당을 줄여서가 아니라 주가가 오른 결과로 읽는 것이 자연스럽다. **환원 확대와 주가 재평가, 그리고 커버리지 하락이 같은 3년 안에서 함께 일어났다.**

국면 판단

이익 10년 최고 손실흡수 완충 축소

현재주가 (26/08/07)

110,000원

목표주가

제시하지 않음

투자자문업이 아니므로 투자 의견·목표주가를 산출하지 않는다.

1순위 점검 지표

**NPL 커버리지
(FY2025 126.55%)**

Key Data

시가총액	51.6조원
발행주식수(보통주)	4.69억주
PER / PBR	11.2배 / 0.9배
외국인지분율	62.3%
공매도잔고비율	0.0%
업종	기타금융 (KSIC 6499F)
위험신호	1건 / 12건 (부채과다)
표시점수 / 등급	95 / A+

영업실적 및 주요 지표

구분	2023	2024	2025	1H26
영업이익(억원)	61,008	64,587	70,234	46,307
순이익(억원)	44,780	45,582	50,845	34,958
EPS(원)	8,048	8,441	9,812	주p
자기자본(억원)	563,219	588,210	603,723	주p
총자본비율(%)	주y	15.79	15.94	주p
고정이하여신비율(%)	주y	0.79	0.74	주p
NPL 커버리지(%)	주y	142.87	126.55	주p
NIM(은행+카드, %)	주y	1.93	1.90	주p
비은행 이익비중(%)	주y	24.14	29.39	주p

1H26 순이익은 연결 기준이며 지배주주 귀속은 3조 4,427억원(+13.3%). **주p** 잠정실적 공시에는 재무상 대표·현금흐름표가 없다. **주y** 우리 적재분에 그 해 값이 없다(회사 미공시가 아니라 수집 공백).

표 1. 이익 궤적 (단위: 억원, %)

구분	2016	2021	2023	2024	2025	1H26
영업이익	31,086	59,521	61,008	64,587	70,234	46,307
순이익	28,249	41,126	44,780	45,582	50,845	34,958
EPS(원)	6,017	8,760	8,048	8,441	9,812	-
2026년 분기 — 1Q 영업이익 21,545 / 순이익 16,491, 2Q 24,763(+22.9% YoY) / 18,467						

주: FY2025 영업이익 7조 234억원은 10년 최고치이며 FY2016 대비 2.26배다. 2Q26은 외부감사 전 잠정치다. 같은 날 자회사별 실적이 '(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으로 별도 공시됐으나 그룹 수치는 지주 연결 공시(20260723800269)만 사용했다. 자료: 사업보고서·분기보고서(2026.03)·연결재무제표기준 영업(잠정)실적 공정공시

표 2. 건전성과 수익 구조 (단위: %)

구분	2024	2025	증감
고정이하여신비율	0.79	0.74	-0.05%p
NPL 커버리지	142.87	126.55	-16.32%p
그룹 총자본비율	15.79	15.94	+0.15%p
수익 구조			
NIM(은행+카드)	1.93	1.90	-0.03%p
비은행 이익 비중	24.14	29.39	+5.25%p
동종 순위 — ROE 8.42%(중앙값 4.93, 29위/120사) · 부채비율 1,201.94%(업종 특성)			

주: NPL 커버리지는 부실채권 대비 대손충당금 비율이다. 부실이 줄어드는 국면에서 커버리지가 함께 내려간 것은 충당금이 부실보다 빠르게 줄었다는 의미다. 부채비율은 예수금·책임준비금이 부채로 계상되는 업종 특성이며 손실흡수 여력은 자본비율로 판단한다. 자료: 사업보고서(2025.12) 자산건전성·자본적정성

표 3. 환원과 밸류에이션

구분	내용
환원 공시(10년)	9건 — 배당 5 · 주식소각 3 · 자기주식취득 1 (전부 최근 3년, 최근 2026-07-23)
희석 공시(10년)	0건
연말 PBR	0.6(FY16) → 0.3(FY20~23) → 0.4(FY24) → 0.6(FY25) · 현재 0.91
배당수익률	3.2%(FY16) → 5.9%(FY22) → 3.4%(FY25)
PER / PBR 대비 동종	11.21배(중앙값 9.16, 81사) / 0.91배(중앙값 0.62, 85사)

주: 공시 건수는 빈도이며 금액 규모가 아니다. 밸류에이션 10년 시계열은 현재 상장주식수 기준이라 과거 증자·분할이 반영되지 않았다. 자료: 10년 공시 이력, KRX 시세 (2026-08-07)

점점 지표

1순위는 NPL 커버리지다. FY2025 126.55%가 더 낮아지면 부실이 늘 때 흡수할 여력이 그만큼 줄어들므로, 고정이하여신비율 0.74%와 반드시 함께 본다(차기 사업보고서 자산건전성). 총자본비율 15.94%는 환원을 늘리면 직접 늘리는 지표이므로 소각·취득 공시와 짝지어 확인한다. 비은행 이익 비중 29.39%는 NIM 1.90%가 더 늘릴 때 완충 역할을 하는지 보는 축이다. 부채비율 1,201.94%는 업종 특성이므로 단독 위험 판단에 쓰지 않는다.

고지

본 자료는 투자자문·투자권유가 아니며 투자의견·목표주가·추정 실적을 산출하지 않는다. 투자 판단의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다. 모든 수치는 DART 제출 공시와 한국거래소 시세에서 인용했고 외부 전망치·제3자 추정치는 쓰지 않았다. 분석과 판단은 전부 자체 산출이다. 근거 공시: 사업보고서(2025.12) · 분기보고서(2026.03) · 연결재무제표기준 영업(잠정)실적 공정공시(20260723800269).

한계: ① 2Q26은 외부감사 전 잠정치다. ② 계열사별 손익이 공시 범위에서 분리되지 않아 은행·카드·증권·보험의 기여를 나누지 않았다. ③ 대손충당금 절대액이 수집 범위에 없어 커버리지 하락을 금액으로 분해하지 않았다. ④ 환원 공시는 건수이며 금액 규모가 아니므로 환원율을 산출하지 않았다. ⑤ 밸류에이션 10년 시계열은 과거 주식수 변동이 반영되지 않아 추세 참고용으로만 썼다. ⑥ 금리·부동산 등 외부 변수의 영향은 공시에서 금액으로 분리되지 않아 다루지 않았다.